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6

▶ 67회 예고
아쇼까왕은 아버지 빈두사라왕이 했던 대로 날마다 6만 명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한편, 수상 라다굽따의 충언을 듣고 지옥궁전 옥주 전타기리가를 선발한다. 잔혹한 그는 공포를 조장하여 아쇼까왕의 통치를 돕는다.



띠쉬아락시따, 꾸날라를 유혹…

침전의 침실 창턱에 달빛이 얹혔다. 아쇼까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서 서성였다. 창 너머로 검푸르게 흐르는 강가강이 보였다. 아직 안개가 강가강을 점령하지 않은 자정 전이었다. 아쇼까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친위대 군사들에게 납치되어 죽은 이복형제와 신하들 때문이었다. 원로대신 칼라따까의 모사로 죽었다고는 하지만 아쇼까도 살해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었다. 아쇼까가 명을 내렸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으므로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고 봐야 옳았다.

남은 왕자는 친동생 비가따쇼까 단 한 사람뿐이었다. 15세의 어린 비가따쇼까가 아쇼까의 정적이 될 수는 없었다.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안심해도 될 법했지만 아쇼까의 마음은 그러지 못했다. 아쇼까는 지독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새롭게 맞아들인 젊은 왕비 띠쉬아락시따가 아쇼까의 마음을 알 리 없었다.

"대왕이시여, 무슨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한 달 후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관식을 치르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소."

"마음이 격동되시어 그러십니까?"

"잘 모르겠소."

"마음을 안정시키는 차가 있습니다. 차를 한 잔 드시십시오."

"무슨 차를 내오겠다는 것이오?"

"따뜻한 짜이에 재스민 차를 타서 가져오겠습니다."

짜이에 재스민 차가 들어가면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띠쉬아락시따는 궁녀에게 들었던 것이다. 띠쉬아락시따는 다실로 들어가 궁녀를 깨워서 짜이와 재스민 차를 만들어 섞게 했다. 띠쉬아락시따가 말했다.

"주전자만 찾아다오. 잔은 침실에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도 있답니다."

"알았어. 너는 모르는 게 없구나."

사실 아쇼까만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띠쉬아락시따도 아쇼까 옆에서 잠든 척했을 뿐이지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띠쉬아락시따는 눈만 감으면 꾸날라가 떠올랐다. 꾸날라의 눈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꾸날라의 호수 같은 눈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아쇼까의 품안에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꾸날라를 본 적도 있었다.

며칠 후.

띠쉬아락시따는 참지 못하고 일몰 무렵에 꾸날라를 자신의 별궁으로 불렀다. 그녀는 몸 구석구석에 향수를 바르고 붉은 비단 사리를 입고서 꾸날라를 맞이했다. 꾸날라는 별궁 다실로 그녀를 뒤따라 들어갔다. 띠쉬아락시따가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다.

"대왕님은 갑자기 일이 생기어 오시지 못해요."

"아버지가 오신 줄 알고 공후를 가져 왔습니다. 아버지는 공후 연주를 좋아하시거든요."

아쇼까가 온다는 것은 꾸날라를 부르기 위해 꾸며낸 그녀의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나도 좋아하니 연주해 줘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꾸날라는 공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그제야 짜이를 마셨다. 짜이는 달콤하고 따뜻했다. 띠쉬아락시따가 시녀에게 눈짓으로 지시하자 밖에 대기하고 있던 시녀들이 준비해둔 음식들을 순식간에 날랐다. 커리의 그릇이 다섯 개나 되었다. 그릇에는 달고 맵고 시고 짜고 떫은맛을 내는 색색의 커리가 담겨 있었다. 술이 담긴 은제주전자도 나왔다.

"자, 시장할 테니 저녁식사부터 해요."

"예, 왕비님."

꾸날라는 마침 시장했으므로 허둥지둥 먹었다.

"너무 빨리 먹지 말아요. 자, 술도 한 잔 해요. 소화가 잘 될 테니까요."

술은 독주였지만 목구멍을 넘어갈 때는 포도주처럼 부드러웠다. 꾸날라는 술을 마신 뒤에도 공후를 연주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녀가 주는 대로 잔을 받았다. 그러나 식사가 끝나가는 초저녁 무렵이었다. 꾸날라는 독주를 여남은 잔 마신 뒤부터 정신을 잃었다. "아!"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의자에 앉은 채 옆으로 쓰러져버렸다. 띠쉬아락시따가 시녀들에게 말했다.

"술이 몹시 약하시구나. 이대로 가실 수 없으니 내 침실 옆방으로 모시거라."

왕비 침실 옆방은 그녀의 부모나 친척이 오면 잠시 머무는 곳이었다. 꾸날라는 곧 그곳으로 옮겨졌고, 띠쉬아락시따는 자신의 침실에 붙어 있는 목욕탕으로 갔다. 그녀는 옷을 다 벗고 욕조의 물속에 몸을 담갔다. 전단향나무 향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욕조의 물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다. 시녀들은 그녀가 목욕하기 좋아하는 물의 온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시녀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쳤던 것이다. 잠시 후 띠쉬아락시따는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꾸날라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방으로 갔다. 그녀는 독주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꾸날라의 옷을 벗겼다. 이윽고 꾸날라가 알몸이 되자 자신도 옷을 벗고 옆에 누웠다. 꾸날라는 꿈을 꾸듯 그녀가 하는 대로 허우적댔다. 그녀는 혀로 꾸날라의 몸 이곳저곳을 마음껏 애무한 뒤에야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다.

눈을 먼저 뜬 사람은 꾸날라였다. 꾸날라는 자신이 알몸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옆에는 띠쉬아락시따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다. 꾸날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눈을 뜬 띠쉬아락시따가 꾸날라의 손을 잡아끌며 말했다.



"나는 꾸날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대왕님께 고해바칠 것입니다."

꾸날라가 침대에서 내려와 저주하듯 소리쳤다. 그러자 그녀가 꾸날라를 측은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게 될 테니까."

띠쉬아락시따도 침대에서 내려와 꾸날라를 뒤에서 껴안으며 말했다. 그녀의 뜨거운 입김이 꾸날라의 귓불에 닿았다.

"나는 꾸날라 왕자님이 탁실라로 가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일만 비밀로 해주면 반드시 탁실라로 보내주겠어."

"당신은 천박한 사람이오!"

꾸날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별궁을 도망치듯 나와 버렸다. 꾸날라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공후를 꼭 안고 뛰었다. 안개가 끈질기게 꾸날라를 에워쌌다. 그러나 꾸날라는 띠쉬아락시따에게 붙잡힐까봐 강가강 쪽으로 뛰었다. 잡목이 우거진 언덕 내리막길에서는 미끄러져 한 바퀴 뒹굴기도 했다. 강가강 모래밭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가시덩굴에 찢긴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꾸날라는 모래밭에서 들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새벽을 기다렸다.

띠쉬아락시따는 우두머리 시녀를 불러놓고 꾸날라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분개했다.

"꾸날라가 나를 천박하다고 했어. 나를 모욕한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말겠다!"

"왕비님, 진정하세요."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나에게 저주를 하다니!"

"왕비님, 왕자님보다 먼저 대왕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띠쉬아락시따는 시녀를 앞세우고 아쇼까 침전으로 갔다. 아쇼까가 그녀를 침전 다실에서 맞이했다. 아쇼까는 대관식을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무슨 일이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하고 왔습니다."

"오, 그대는 젊고 마음이 아름답소."

"대왕님께서 칭찬해 주시니 저는 행복하기만 합니다."

"아침 일찍 온 것을 보니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소."

"간밤 내내 생각한 것입니다. 꾸날라 왕자님이 탁실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소. 꾸날라에게 다시 한 번 의향을 묻고 결정하겠소."

아쇼까는 탁실라를 그리워하는 꾸날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왕자들과 신하들이 죽어가는 왕궁을 진즉부터 떠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대왕님께서 꾸날라 왕자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대관식 전에 탁실라 부왕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꾸날라 왕자님은 대왕님께 더 이상 보내달라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꾸날라 왕자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부왕으로 보내주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맞소. 꾸날라는 야망이 없는 아들이오. 그게 걱정이오. 그런데 그대가 나서서 보내달라고 하니 고마운 생각이 드오. 아들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려면 공후가 아니라 탁실라로 가서 야망을 키워야 하오."

"대왕님, 잘 됐습니다."

"꾸날라를 불러 확인한 뒤 대관식 전이라도 바로 탁실라 부왕으로 보내겠소."

그래도 띠쉬아락시따는 초조했다. 아쇼까와 꾸날라가 대면하게 되면 무슨 말이 오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때 라다굽따가 급히 보고할 일이 있다며 침전 다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꾸날라의 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며 불안해했다. 라다굽따가 선 채로 보고했다.

"대왕님이시여, 벌써 도착한 축하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묵을 숙소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왕님께서 환영한다는 구두 메시지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축하사절 단장을 만나 전하겠습니다."

"수상, 그런 메시지는 수상께서 알아서 하시오."

"아닙니다. 그들은 대왕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해 두었다가 자국의 왕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히 구두 메시지를 주셔야 합니다."

"알겠소."

아쇼까가 라다굽따에게 전한 구두 메시지는 '축하사절단을 환영합니다. 나는 나의 대관식을 통해서 그대의 나라와 친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였다. 라다굽따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아쇼까가 말했다.

"수상, 꾸날라에게 왕명을 전하시오. 꾸날라를 탁실라 부왕으로 임명하니 즉시 떠나라고 전하시오."

"대왕님, 대관식에 참석한 뒤 떠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의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치른 뒤 사랑하는 꾸날라와 헤어지고 싶지 않소. 그래서 대관식 전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오."

"대왕님의 마음을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꾸날라 왕자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에게 복수를 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고소해했다. 아쇼까가 꾸날라를 만나지 않겠다는 것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띠쉬아락시따가 말했다.

"대왕님, 꾸날라 왕자님은 대왕님께 고마워할 것입니다. 가고 싶어 했던 탁실라로 떠나게 됐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나를 옆에서 돕고 있으니 든든하오. 대관식 날 나는 그대를 내 옆에 앉혀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소."

띠쉬아락시따는 자신이 원했던 바를 다 이룬 것 같은 성취감에 눈물을 흘렸다. 아쇼까는 그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는 '그대는 순수하고 마음이 여리군!' 하고 중얼거렸다.〈계속〉

